

# 만루홈런이 준 깨달음... 정해영 “부담 버려야 승리 지킨다”

1주일 전 추신수에 만루포 허용  
장점 끌어내는 '보약' 됐다  
키움전 무실점 브룩스 2승 지켜내



추신수의 만루포가 마무리 정해영의 장점을 끌어낸 '보약' 이 됐다. KIA 타이거즈의 정해영은 지난 2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2로 앞선 9회초 출격해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시즌 6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의 약몽을 지우는 반전의 호투였다. 정해영은 지난 19일 SSG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2사 1-2루에서 장현석에 이어 등판해 연속 볼넷으로 밀어내기 점수를 줬다. 그리고 이어진 추신수와 승부에서 풀 때리는 만루포를 허용했다.

올 시즌 필승조의 줄부상과 부진으로 마무리 중책을 맡게 된 정해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패배가 남았다. 하지만 그냥 실패로만 끝난 하루는 아니었다. 정해영은 이 실패 속에서 답을 찾았다. 정해영이 찾은 답은 '장점'이다.

정해영은 27일 "어제 스피드가 잘 나와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내 장점을 안 살리고 약점만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좋았을 때는 익스텐션이 좋았다.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와서 던졌는데 안 좋았을 때는 그걸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치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만루홈런 맞고 그때부터 내 장점을 못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 홈런 하지만 더 아쉬운 것은 앞선 상황에서의 승부였다. 정해영은 "홈런 맞은 것은 추신수 선배님이 잘 치신 것은 있는데 그 전 타자와 승부를 했어야 했다. 그걸 못한 게 더 아쉽다"고 돌아봤다.

아쉬운 패배 뒤 깨달음을 얻은 정해영은 이어진 삼성 원정에서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정해영은 "원정 가서 하체 쓰는 법을 많이 배웠다. 조금 더 빨리 알아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래도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유지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체와 익스텐션에 신경 쓴 정해영은 22일 삼성전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도 가졌다.

9-4로 앞선 9회말,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등판해 김상수, 김현근, 강한울을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26일 키움전에서는 1점의 박빙의 승부에서 마무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브룩스의 시즌 2승을 책임졌다.

지난해 '깜짝 활약'을 하면서 불펜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정해영은 올 시즌에는 마무리라는 무게를

역할까지 맡았다. 자리도 자리지만 선배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투기 3인방'이 가세하는 등 마운드가 젊어지면서 정해영의 역할이 더 늘었다.

정해영은 부담감을 '결과론'이라며 '무심(無心)'으로 팀의 승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정해영은 "생각 없이 던졌 때 가장 잘 던지는 것

같다. 못 던졌을 때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됐고, 잘 던졌 때는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됐다. 부담감은 결과론인 것 같다"며 "지금처럼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형우 긴~ 부상에 이정훈 욕심 커진다

키움전 역전 스리런 첫 결승타

최형우의 복귀가 가까워질수록 이정훈의 욕심은 커진다.

KIA 타이거즈 이정훈이 '파워'를 보여주면서 좌타거포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훈은 지난 2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안우진의 151km 직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겼다.

0-2로 뒤진 2사 1-2루에서 나온 역전 스리런이었다. 그리고 이날 브룩스의 7이닝 2실점(1자책점) 호투와 장현석과 정해영의 끝까지 마무리로 경기 3-2로 끝나면서 이정훈은 프로 첫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 안우진이) KBO리그에서 본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 중 하나였는데 이정훈이 전력을 가지고 타석에 섰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정훈은 시즌 초반 공격력 극대화를 위한 '3포수' 전략에 따라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두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한 게 전부였다.

4월 8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이정훈은 지난 5일 최형우가 땅막 이상으로 빠지면서 다시 콜업됐다. 그리고 이날 홈런으로 7경기 연속 안타에도 성공하는 등 최형우의 부상 공백 속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홈런은 결과가 결과지만 그 과정이 이정훈에게는 더 만족스러웠다.

이정훈은 26일 경기가 끝난 뒤 "팀 승리에 기여해서 기쁘다. 최근 히팅 포인트가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가져가서 결과가 나온 게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6일 경기까지 52타수 18안타로 5월 0.346의 타율을 기록한 이정훈은 2개의 스리런을 앞세워 8타점도 생산했다. 처음으로 꾸준히 타석에 서면서 경험도 쌓이고 자신감도 커졌다.

이정훈은 "앞서 2군 내려갈 때는 솔직히 포수가 많았고 내가 못하면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잘 할 수 있으면 올라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 것 지키면서 성실히 운동했다"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형우 선배님 오실 때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경기에 많이 나가면서 욕심이 생겼다. 선배님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될



이정훈

지 모르겠지만 많은 타석에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우도 복귀를 위한 시동은 걸었다. 전날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대타로 두 타석에 나온 최형우는 27일에는 4번 타자 지명타자로 4타석을 소화해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피지컬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시야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왼손 투수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귀하면 좌투수를 많이 봐야 해서 확실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며 차분하게 최형우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형우의 복귀에 대비, 이정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이정훈이 십자대 부상 이력이 있는 만큼 1루수로도 연습을 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포수도 가능하지만 매일 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오늘 김민우 코치와 함께 1루에서 연습을 했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텍사스 양현종, 31일 시애틀전 선발 등판

최악의 투구로 쓴맛을 본 양현종(33·사진·텍사스 레인저스)이 시애틀 매리너스를 상대로 다시 힘을 낸다.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구단은 27일(한국시간) 게임 노트를 통해 양현종이 31일 오전 5시 10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리는 시애틀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양현종은 시즌 4번째 선발 등판에서 부진 탈출

을 노린다. 그는 26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경기에서 3⅓이닝 7실점으로 무너져 시즌 2패째를 당했다.

양현종은 시애틀의 일본인 왼손 투수 기쿠치 유세이와 선발로 대결한다. 시애틀에서 3년째 뛰는 기쿠치는 올해 2승 3패, 평균자책점 4.02를 기록 중이다.

양현종이 빅리그 첫 승리를 거두려면 제구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양현종은 최근 3경기 내리 볼넷



3개 이상을 허용해 위기를 자초했다.

빅리그에서 한일 투수 선발 대결은 2014년 8월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 당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와다쓰요시(당시 시카고 컵스)와의 대결 이래 7년 만에 열린다.

역대 9번의 한일 투수 선발 대결에서 한국인 투수들이 6승 1패를 거둬 1승 5패에 그친 일본인 투수들을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

## 골프장 '코로나19 특수' 호황 예약자 주말보다 평일에 몰려

국내 골프장이 '코로나19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인 가운데 최근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예약 패턴에 변화가 두드러진다.

골프 예약 서비스 업체 엑스골프(XGOLF)는 27일 "최근 3개월 예약률 현황을 보면 평일 예약률이 주말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전년 대비 그린피가 20~30% 상승해 주말 골퍼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엑스골프의 최근 3개월 예약률을 보면 3월은 수요일이 전체 예약률의 14.5%를 차지해 토요일 13.4%, 일요일 13.5%를 앞질렀다. 또 4월에는 금요일이 19.2%, 목요일 17.6%를 기록한 반면 토요일 12.2%, 일요일 14.7%로 '평일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5월에도 수요일이 17.8%, 토요일 16.8%, 일요일 15.3% 순이었다.

엑스골프는 "주말 그린피가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대까지 형성되는 데 비해 주중은 10만원 중·후반대로 차이가 난다"며 "연차나 반차를 내고 골프를 즐기려는 회원이 늘었고, 연차를 내기에 부담이 없는 수요일 문의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엑스골프는 또 "골프장 주중 2부 타임의 경우 예약 시작 후 1, 2시간 이내에 모두 마감되지만 주말은 잔여 시간대가 남아 5~7일 전 임박 특가들이 나올 때도 있다"며 "공휴일이 많은 5월에도 공휴일 당일보다 앞뒤 평일로 예약이 몰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고진영·박성현 LPGA 매치플레이 첫 승

박인비·김세영·이정은 무승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4년 만에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치플레이 대회 첫날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고진영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세도 크리크 골프클럽(파72-6777야드)에서 열린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달러) 조별 예선 1차전에서 내털리 걸비스(미국)를 2개 홀을 남기고 4홀 차로 꺾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는 올해 신설된 대회다. 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가 열리는 것은 2017년 5월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이후 약 4년 만이다.

박성현(28)은 호주 교포 오수현(25)을 상대로 1승을 거뒀다.

14번홀(파5)까지 1홀 차로 앞서던 박성현은 15번홀과 17번홀(파3)을 때내면서 1홀 남기고 3홀 차로 승리했다.

유소연(31)은 라이언 오닐(미국)에게 1홀 남기고 3홀 차로 승리했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33)는 제니퍼 장(미국)과 무승부를 거뒀다. 박인비는 1홀 차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무승부를 만들었다.



고진영

2017년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세계랭킹 3위 김세영(28)도 우에하라 아야코(일본)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막판 접전이 치열했다. 김세영은 15번홀까지 1홀 차로 끌려가다가 16번홀(파5)을 때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우에하라는 17번홀을 가져가고 다시 앞섰지만, 김세영이 18번홀에서 승리하면서 무승부를 만들었다.

이정은(25)도 파자리 아난나루카르(태국)과 비겼다. 이정은은 1홀 차로 앞서다가 18번홀을 내줘 따라잡히고 말았다. /연합뉴스